

대통령님, 학교 도서관에 가 보십시오

김영환
(국회의원)

책을 가까이하기로 유명한 대통령을 가진 우리 나라, 취임 직후 모 월간지에 아들의 학생 시절 일기에 꼼꼼하게 적어 놓은 대통령의 독서지도 메모가 실려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백 년 역사를 단숨에 바꿔 버릴 '정보화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새 천년을 이끌어 갈 수많은 어린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곧 컴퓨터와 정보화 혁명의 주인공이 될 세대입니다. 정권교체와 대통령의 취임은 그 자체로 개혁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이 나라 교육문제 해결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고시를 거치지 않아도 국가를 경영하고 역사를 바꾸어 낼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 나라 어린이들에게 심어 준 것입니다. 세상일이 가득 들어 있는 책을 많이 읽어 문화적인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운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나 '쥬라기공원'의 스티븐 스피버그가 그러합니다.

교육개혁과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적인 법만으로는 교육개혁과 정보화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양한 국민 운동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정보화와 교육개혁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 민관합동의 다양한 개혁 프로젝트, 행정개혁을 위한 과감한 조치 등 무수히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당국의 정책과 장관의 자질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을 때, 똑같은 문제를 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아웅다웅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정보화 혁명의 물결은 우리를 덮치고도 모자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전망도, 준비도 없이 현실문제에 매달려 그때 그때 해결하고 봉합하는 일에 너무 익숙합니다. 바로 이런 현실이 오늘날 갖가지 부조리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1998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5천6백88개 초등학교에 있는 학교 도서관은 9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학생 1인당

장서는 세 권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예산도 고작 신문 두세 부 값에 불과한 9백28원이랍니다. 이렇게 딱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보화 촉진과 교육개혁을 논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를 지닌 정보화 물결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결을 예측하고 분석해 물결의 속도를 따라잡는 빠르고 예민한 감수성과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진 두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필요합니다.

정보를 빠르게 찾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전달하는 능력이야말로 정보화와 교육개혁의 핵심이요 시작이자 끝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작업이 어느 변두리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를 '학교 도서관' 으로부터 준비하자는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불과 7,8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좋은 어린이 도서들을 초등학교 안에 마련된 도서관 서가에 꽂으면서, 학생과 부모들에게 책 읽는 자세와 방법을 가르치고, 학부모가 기증한 586컴퓨터에 든 도서 관리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함께 클릭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1만 8천 원의 일당을 받고 공공근로를 하는 젊은 사서들입니다. 학교 도서관 만들기 운동에 공감한 어느 시민봉사단체는 결식아동들에 대한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 에서 착안하여 초등학교생 모두에게 '정신의 쌀' 을 보내자며 도서구입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조하여 없는 예산을 쪼개 학교 도서관에 컴퓨터를 사 주는 방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소신 있는 교장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해 학교 도서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할 교실도 모자라는 학교에 도서관 공간이 있을 턱이 없고, 월 50만원 안 되는 공공근로 급여로 자격증 있는 사서에게 얼마만큼의 봉사와 희생을 요구해야 할지도 난감합니다. 혼한 것만 같은 책과 컴퓨터는 또 왜 이리 구하기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정책당국이 정보화 촉진을 위해 각급 학교에 투자한 예산의 10분의 1 아니 1백분의 일이면 놀랄 만한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정책당국이 위로부터 실시하는 독서 캠페인보다 더 의미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예산이 뒤따른다면 수많은 어린이가 감성과 정보의 산실인 책을 가까이하며 무럭무럭 자라면서 지식정보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책을 좋아하는 대통령 할아버지처럼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바른 자세로 책을 읽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로 자라난다면 우리는 21세기에 가장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컴퓨터 관련 회사는 번창하는데 출판사는 문을 닫는 모순된 경제현실도 시정될 것입니다. 정치도 참다운 내용을 담게 되고,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오로지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념으로 시민들 스스로 뛰고 있는 작지만 눈물겨운 노력의 현장 학교 도서관에 가 보십시오!

이 글은 단행본 『홀로선 당신이 아름답습니다』(김영환 저, 중앙M&B)의 202-205 쪽에 실린 내용을, 필자인 김영환님(국회의원)의 양해를 얻어 전문을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전제를 허락하여 주신 필자에게 감사드린다 ■ 편집자